

# INVENTION 365

## 3

### 자동시계

요즘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형 자동태엽시계는 20세기 초에 출현되었다. 크고 무거운 화중시계를 소형화로 탈바꿈시킨 것은 손목시계로의 실용화가 진전되면서부터이다. 영국의 존 하우드가 1923년 자동 운동 시계의 특허를 받은 것이 발명다운 발명이었다.

하우드는 시계 수리공이며 제조기술자였다. 그는 시계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면 고장이 나고, 또 시계의 태엽을 불규칙적으로 감는 것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시계의 태엽을 감지 않는 영구 운동 시계를 고안했다. 하우드는 자동시계 회사를 설립하여 1928년부터 판매에 들어갔으나 경제불황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1930년 스위스의 로렉스 시계회사가 자동시계를 제작하였으며, 방진·방수화로서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 자동차

자동차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이처럼 당연시 생각되는 자동차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82년 독일의 칸스타트라는 마을에 이상한 집이 있었다. 그집 이층은 매일 밤늦도록 불이 켜 있고, 이상한 기계소리만 들리는 수상쩍은 집이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달려온 경찰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집주인은 다이물러와 함께 달리는 기관을 연구하던 마이밋호였다. 당시 독일에는 증기기관차와 말이 끄는 마차가 함께 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엔진을 위해 4년간이나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1885년 드디어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새로운 차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하여 인류의 삶의 필수품인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하였으며 가솔린 기관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벤츠가 가솔린엔진 자동차를 만들어 시운전에 성공하였다.

## 6

### 자동판매기

## 5

커피를 비롯한 각종 음료, 라면을 비롯한 식품, 심지어는 전철 승차권과 책까지도 돈만 넣으면 척척 내주고, 거스름돈까지 정확하게 거슬러주는 자동판매기는 이제 없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해 있다.

이 편리한 자동판매기는 누가 발명했을까? 최초의 발명가는 영국의 덴함이다. 당시 영국에는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놀이기구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놀이기구를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 가운데 덴함은 그것의 원리를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여 곧 제작회사를 찾아갔다. 뜻밖에도 그 원리는 너무나 쉽고 간단했다. 단지 동전의 무게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순간 덴함의 머리속에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는데, 바로 자동판매기였다. 그가 처음 발명에 성공한 것은 우표와 수입인지의 자동판매기였다.